복잡한 금융주소 변경, 온라인으로 '한번에'

알면 편리한 '금융주소 한번에'

은행·카드사 등 주소지 일괄 변경
각 금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 피해 예방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너무나 많은 금융관련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일일이 모두를 알아서 챙기기도 힘들다.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시대에 맞춰 많은 것이 보다 간편해지고 있다. 알아두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 금융 서비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융주소 한번에'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무엇?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 소비자가 잦은 이사나 이직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편리한 서비스다.

예전이라면 일일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찾아다니거나 전화로 연락해 주소지를 변경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가 사라졌다. 올해 1월18일부터 국민편의를 위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나왔다. 일괄적으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사실상 전 금융기관이다.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하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택 또는 회사 주소만 일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주소 변경을 희망하는 금융사를 따로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청 후에는 각 금융회사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소지 변경 결과를 알려준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좋은 이유

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이전 주소로 날아간 대출금이나 보험 관련 우편물을 받지 못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중요한 금융정보 자료를 받지 못해서 당하는 피해가 사라진다. 오래 되서 깜빡 잊어버리고 있던 예금, 적금, 보험금 등 휴면 금융재산 발생도 막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다른 주소로 오가는 대량의 우편물 발송과 되돌려 보내기 등의 비용이 사라지게 된다. 주소지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줄어든다. 연락처와 이메일은 변경할 수 없고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과 5자리 우편번호로 신청해야 한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변경 뒤 완료까지 대략 일주일이 걸린다.

●온라인 접수 시행 이후 사용자 급증

1월18일 시행 이후 처음 몇 달간은 직접 사람이 한 번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가능해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이 사라졌다. 각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사용자의 수가 엄청 늘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프라인만 가능할 때와 비교해 온라인 접수 시행 이후 사용건수가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처별로 보자면 은행의 이용자가 가장 많고 이어 카드사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순이었다. 6월부터는 편리한 서비스대상 기관에 골든브릿지증권 BNK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와 KB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5개 캐피탈회사, 한국장학재단 등 9개 기관이 추가됐다. 골든브릿지증권와 BNK투자증권(창구 및 홈페이지), 바로투자증권(창구)은 서비스 신청 및 주소변경이 가능하고 5개 캐피탈사와 한국장학재단은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주소변경만 가능하다.

한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한 사람 당 금융회사 수는 평균 17.6개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35.3%), 30대(30.9%)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30·40대는 홈페이지 이용을 선호했고 50대 이상은 창구를 직접 찾았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보험 부당청구 '1조원' 넘었다

신고포상 제도 실적 저조
인센티브 상향 조정 필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주인 없는 눈먼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생각이 퍼져나가면서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험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적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새나가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3838억원이다. 지난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415억원이다. 관련 기관은 다양한 해결책을 찾지만 한 명의 도둑을 백 명이 막아내지 못한다는 말처럼 점점 전문화되고 지능화하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당청구를 막기에는 힘이 부친다. 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지만 신고실적이 저조하다.

총 적발금액 가운데 신고로 부당청구를 적발한 금액은 각각 국민건강보험 3.6%(2013년), 민영보험 6.8%(2014년)에 불과했다. 그래서 보험연구원은 국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현재보다 더 높아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수진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5억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다.

보험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감시 기능을 촉진하고 있다. 건당 포상금이 약 63만 달러(7억4000만원)로 그 덕분에 미국은 1987~2015년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가운데 신고로 적발한 금액의 비율이 81%였다.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도 15.6%였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내부 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인사조치나 부수적 피해를 감수할 정도의 충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건 기자

KEB하나 "골드바 사면 금수저 드려요"

KEB하나은행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성공적인 전산 통합을 기념해 6월 13일부터 7월29일까지 금수저를 주고, 광복둥이에게는 돌반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 우선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1kg 짜리 골드바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순도 99.99%의 순금 금수저 1g을 준다. 또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함께 올해 8월15일이 첫 돌인 광복둥이를 둔 부모가 아기 명의로 아이사랑적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금 돌반지 1g도 준다. KEB하나은행은 "전산 통합을 기념해 이벤트를 준비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에 따라 고객들의 골드바 구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로드FC가 함께한 '나눔 운동회' 종합격투기 로드FC가 10일 강원도 원주시 심향영육아원에서 '사랑♥나눔 프로젝트' 네 번째 이야기인 '로드FC 선수들과 심향영육아원이 함께하는 작은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로드FC 정문홍 대표와 차정환 등 현역 챔피언과 파이터들, 개그맨 윤형빈, 배우 김보성 등이 참여해 샌드백 등 물품을 전달하고 격투기 기술을 지도했다. 로드FC는 앞으로도 사회환원 나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로드FC

BC카드, 캐리비안베이 1+1 이벤트

BC카드는 6월 한 달 동안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1+1 이벤트를 한다. 오는 30일까지 캐리비안베이 현장 매표소에서 BC 신용카드로 이용권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동반자 한 사람의 이용권을 무료로 준다. 동반자 3명 까지는 추가 이용권 구매 시 최대 4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BC 신용카드로 캐리비안베이 이용권을 결제한 고객과 1+1 혜택을 받은 고객 2명 모두에게 추가로 당일 에버랜드 야간 이용권(18시 이후)도 무료로 준다. 당일 구매한 캐리비안베이 이용권을 에버랜드 입장 게이트에 제시하면 에버랜드 야간 이용권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다.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BC 신용카드 고객이면 행사기간 내에 한 번 사용 가능하다. BC 로고가 없는 카드는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워치뱅킹에 음성인식 도입

우리은행이 스마트워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음성인식 문자입력 서비스를 우리워치뱅킹에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워치의 특성상 작은 화면을 보면서 문자를 입력해야 해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줬다. 음성 서비스의 적용 범위는 보안과 관련된 6자리 PIN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등을 제외한 모든 입력항목이다. 안드로이드OS용 스마트워치에 우선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웨어러블 뱅킹을 자체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음성인식 문자입력서비스도 금융권 최초로 개발했다"며 "첨단기술을 이용해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보험사에 부정적 영향"

보험연구원 "채권수익률 개선 필요"

"기준금리 인하가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험연구원이 12일 '금리인하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때문에 신계약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예정이율이 하락해 보험료 상승이 이뤄지고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환급금이 감소해 보험상품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또 채권 투자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는 금리하락 탓에 금리역마진이 확대돼 당기순이익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기준금리인하 당일인 9일 국채 3년물 지표금리는 전일대비 3.3bp(1bp=0.01%p) 하락한 1.345%를 기록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전일대비 각각 4.4bp, 3.7bp 하락한 1.425%와 1.660%였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운용자산이익률 감소폭이 보험부채 부담이율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2015년 말 기준 금리역마진 갭은 0.76%포인트까지 확대됐다.

보험사 입장에서 금리하락은 금리역마진위험액 확대로 요구자본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금리역마진위험액은 2014년 1조1926억원에서 2015년 2조7070억원으로 늘어났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수익 투자편입비중 확대 등 채권수익률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스포츠동아 안내 광고문의및접수 02)2201-5558

4월 출시(USB/비디오/DVD) 소설/만화/잡지 자위기구(남/녀) 비.씨1통6만(2통10만)조루방지5애무기5 옥링5정력콘돔5확장기5캡틴15딜도5 010-3981-7115

강한 남성 ★효과100%후불제★ 미제 정품 한통(30정) 은박(32정) 1회복용 5일지속 / 각종캡슐 두통 홍조 쓰림없는강한발기 010-5906-0667

70~80세 약한발기 부작용 없는 강한 발기 1캡슐 3~6일 지속효과 USA 아미노젝스 수입정품 ※유사상품주의※ 우체국 310342-02-085091 박충화 010-6445-4123

강한남자 미국정품 효과100% ★후불제. 탁월한효과. 강한발기. 각종캡슐 도매가. 카드가 010-7600-4116

고개숙인 남성 "썬터치"가 인기!



■광고사전 심의필증 심의번호 2008-97-09-0065 〈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 취득〉 · 제조허가 no 제802호 · 품목허가 no 제2000-1호

최근 만년필처럼 생긴 "썬터치"(발기 유발제 약물주입기)가 큰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약물은 직접 주사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여 왔었는데 이를 '썬터치'라는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썬터치"는 버튼 하나로 간단히 약물(약물은 병,의원에서 처방함)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의료기기이고 볼펜처럼 작아 휴대가 편하다. 또한 조직이 쉬워서 누구든지 편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점이 제품의 장점이다.(약물 효능은 병,의원으로 문의)

문의 (서울) 02-2279- 4656 부산 051-808-7411 BT코리아





